

# 광주·전남 미래 이끌 청년 7명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대학·청년 일반 6명·고교 1명...지역 인재 저력 확인  
AI 신약·에너지 촉매·청년농업·문화기획 성과 인정

광주·전남지역 청년·학생 등 7명이 '2025 대한민국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인재상은 지역 심사와 교육부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쳐 고교·청소년 분야 40명, 대학·청년 일반 분야 6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해 상장과 상금(국무총리상 1명 300만원, 장관상 99명 200만원)을 수여한다. 광주에서는 고수분·유민서·최혜지씨가 대학·청년 일반 분야 수상자로 뽑혔다. 고수분씨는 인공지능(AI) 기반 단백질 설계를 활용한 신약 개발 연구로

'DTMBIO 2024 국제학회' 최우수 발표상을 수상했고, 2024년 하반기 한국연구재단 석사과정 연구장려금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등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현재는 AI 기반 단백질 면역원형 예측 기술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면역치료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유민서씨는 광전기화학 질소 환원 반응 촉매 개발 분야에서 국제학술지 제1저자 논문 게재를 포함해 주저자 논문 2편, 국내외 학회 발표 6회, 특허 2건을 쌓았다.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교내의 장학생으로 여러 차례 선발됐고, 전남대학교 이노베이션 제3회 해커톤에서 총장상도 받았다. 최혜지씨는 광주지역 청년클래스



약단체 '아르플레넷'을 창단해 대표로 활동하며 14회의 공연을 기획·연출했다. 광주문화재단·북구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무료 공연을 진행, 클래식 음악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전남에서는 대학·청년 일반분과 수상자로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김동건, 전남대학교 김형섭, 국립순천대학교 한승혁씨가 선정됐고 고교·청소년 분과에서는

광양백운고등학교 이종훈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김동건씨는 2014년 장흥군4-H연합회 활동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2년간 4-H 경진대회, 청년창업농업인 소통협의회 추진 등 지역 활동을 이어왔고, 드론 무인 방제 보급에 앞장서 지역 청년농업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김형섭씨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은상 수상 등 학업과 현장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이끄는 실전형 융합인재로 평가됐다. 한승혁씨는 전남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로컬 청년 잇다' 대표 활동, YMCA 봉사동아리 회장·봉사분과회 추진 등 지역 활동을 이어왔고, 드론 무인 방제 보급에 앞장서 지역 청년농업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이종훈 학생은 피지컬 AI 분야를 탐구하며 학술적 성취와 함께 공동체 속 리더십·배려를 실천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한편 대한민국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격려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도농기원, 성과보고회...차산업연구소 차연구팀 '대상'

총 15개 전문연구실 경쟁  
연구 성과 내년 계획 발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최근 '2025년 전문연구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 연구실 시상과 함께 국제협력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성과보고회에는 연구·지도직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5개 전문연구실이 2025년 연구 성과와 2026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현장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연계해 운영했으며, 내·외부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최종 평가 결과, 대상은 차산업연구소 차연구팀이 선정됐다.

차연구팀은 전남 차·커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커피 홍보관 조성·운영 등 대외 홍보와 현장 확산 활동을 통해 농업기술원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린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25년 전문연구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 연구실 시상과 함께 국제협력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식량작물연구소 작물연구팀이 수상했다. 작물연구팀은 품종 육성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연구 성과를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수상은 농업환경팀과 육종재배팀이 각각 선정됐다. 농업환경팀은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과 병해충 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영농 현안 해결과 재배 안정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육종재배팀은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와 무화과 연구를 비롯해 바나나 등 아열대과수 재배기술 연구를 추진하며 지역 과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성과가 돋보였다. 이어 2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2026년 국제공동연구 신규 추진과 관련해 △커피 기후적응형 품종 및 재배기술 △가축 유전자 편집 기반 정밀 육종 분야의 협

력을 공유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AI 활용 방안과 작물 모델링 기반 예측·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연구의 성과는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현장 수요 중심의 실용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실증·확산하고, AI 활용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순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어린이집 '이웃사랑'

순천시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 어린이집 2개소로부터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0만원, 공립오전보육이나눔어린이집에서 마련한 수익금 100만원, 두산위브어린이집 김금숙 원장 가족이 기탁한 330만원 등 총 630만원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 인사

**광주·전남경찰청** ◇광주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 담당관 윤주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종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영록 △경비과장 박태준 △치안정보과장 장승영 △형사기동대장 전병현 △안보수사과장 장진영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김태형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임진영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최병윤 △북부경찰서장 양백승 ◇전남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이재성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정재봉 △치안정보과장 송기주 △수사과장 김효진 △경공 △범죄예방대응과장 공경원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문대열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서현우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양광희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박인신 △여성청소년과장 박용원 △차지경찰위원회 이석현 △여수경찰서장 장원석 △광양경찰서장 김희중 △고흥경찰서장 안민택 △해남경찰서장 박미영 △무안경찰서장 최영수 △장흥경찰서장 김경호 △보성경찰서장 신완수 △영광경찰서장 김중신 △화순경찰서장 양신철 △영암경찰서장 박용 △

장성경찰서장 박동성 △강진경찰서장 박현규 △안동경찰서장 이병형 △진도경찰서장 황동석 △구례경찰서장 정영교 △신안경찰서장 노광민 **광주시 동구** ◇5급 승진 △총장동장 직무대리 이유영 △산수 1등장 직무대리 김종도 △혁동장 직무대리 김민진 △계림2동장 직무대리 박우현 ◇5급 전보 △청렴감사관 이경석 △인구청년정책과 김민정 △행정지원과 유홍수 △위생과 이상철 **광주시 북구** ◇4급 승진 △북복지정책 과 안향진 △소상공민지원과 장재익 △시설지원과 노경남 ◇5급 승진 △기획예산과 박진영 △안국교육과 이영란 △감사담당관 왕정원 △위생과 이자숙 △공공주택과 최귀환 △토지정보과 김정훈 ◇4급 승진 △문화관광실장 보실장 오병환 ◇5급 승진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 △교육 위경선 ◇5급 전보 △총무과장 백수영 △재무과장 김소향 △예산면장 안관기 △안양면장 박관용



## 한국동서발전(주) 노조, 지역 상생 실천

박성군은 최근 군청 소문마루에서 한국동서발전(주) 노동조합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 270명이 참여한 총 27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한국동서발전이 앞서 사회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EWP1004 프로젝트 태양광 전달식'에 이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기탁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과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업'을 비롯해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군정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추후면 일일예 조성될 양수발전소 사업과 연계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 게시판

-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정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

- 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결혼** △고 배동영·박귀자씨 아들 대희군, 신경식(중흥그룹 전무이사)·김현미씨 딸 채원양=1월 3일(토) 오후 12시 30분. 하우스오브드메르 신관 1층 지킴을(광주 도천동 147-29) 062-228-0000.

### 은세 (음력 11월 10일)

- 48년생 지인을 무시하면 화가 올 것
- 60년생 순리에 맞지 않는 문서 받지 말라
- 72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운세
- 84년생 뒷사람들과 불화가 생겨 애로 많은 날
- 96년생 어려움 있으나 희망은 가까워진다
- 51년생 협동심 발휘하니 막혔던 일 일사천리
- 63년생 주변사람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
- 75년생 상사 피하지 말고 당당히 부딪혀라
- 87년생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니 열려 말라
- 99년생 배로 되돌아온다
- 54년생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다
- 66년생 둘 다 취하려면 다 읽는다
- 78년생 귀하의 마음부터 우선 잡아라
- 90년생 연인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라
- 57년생 귀하의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
- 69년생 출장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 81년생 근심 있어도 맹심시 태도를 취하라
- 93년생 기본 좋게 금전 지출 하는 날

- 49년생 비교적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된다
- 61년생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중
- 73년생 세상을 단식 말고 정성껏 노력하라
- 85년생 귀인 만나 직분 얻으니 운수 좋은 날
- 97년생 하던 공부 계속 하는 것이 길하다
- 52년생 지혜와 수단으로 인해 재물을 얻을 것
- 64년생 돈 주머니 험하게 묶고 아끼는 것 상책
- 76년생 지인 한테 잔패 부러뜨려 하사가 된다
- 88년생 얻은 문서 잃어버리니 부부 불화
- 55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
- 67년생 둘 다 취하려면 다 읽는다
- 79년생 귀하의 마음부터 우선 잡아라
- 91년생 연인에게 털어놓고 의논하라
- 58년생 자녀의 혼담이 무리익을 운세
- 70년생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그대로 추진하라
- 82년생 일 급히 하려고 마음 태우지 마라
- 94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라

- 50년생 배우자와 언쟁 늘어날 우려 있는 날
- 62년생 불화 생기기니 사랑과 이해로 감쌀 때
- 74년생 뒷사람 의견은 존중하고 따르라
- 86년생 배우자와 함께 나눠야 더욱 길하겠다
- 98년생 미워도 표시를 내지 말아야 한다
- 53년생 친구에게 이기려고만 하지마라
- 65년생 절투는 시기는 불신 초래 할수 있다
- 77년생 배우자와 상의하니 성과 좋은 날
- 89년생 일 할수록 입도 험하다
- 56년생 오해에 인한 다툼이 보인
- 68년생 거래처는 귀하의 재물 보따리
- 80년생 우선 참고 기다리면 돈 문제 해결될 것
- 92년생 적절한 기회 돌아오니 잘 활용할 때
- 59년생 차질 생길수도 있지만 그 속 해답있다
- 71년생 배우자의 관재구설 운을 주의
- 83년생 뉘든 뉘 만큼 소득이 있다
- 95년생 직장에 체류로 입사 할 수 있다